

미국 오는 우편물 81% 급감

800불 미만 관세 면제 정지 영향 "거의 멈춘 상태"



국제 우편연합(UPU)은 지난 8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액통관 규정을 중단한 이후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 우편물량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UPU에 따르면 8월 29일 소액통관 규정이 종료되자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우편물은 사실상 "거의 멈춘 상태"가 됐다. 이 규정은 800달러 미만의 소형 화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UPU가 각국 우편사업자 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월 29일 미국행 우편물은 일주일 전 대비 8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UPU 마사히코 메토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UPU의 임무는 전 세계를 하나의 우편 영토로 묶어 우편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미국으로의 우편 흐름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히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최소 88개국의 우편사업자가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일부 혹은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소액통관 제도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원산지에 따라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위조품, 펜타닐 등 불법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청장은 "그 동안 이 허점은 범죄 조직이 펜타닐과 위조품, 불법 화물을 미국에 쏟아내는 데 악용돼왔다"며 "이제 그 시절은 끝났다. 우리는 국경을 지키고, 공정한 무역을 회복하며, 미국 가정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newsday.com

시 붐 타고 '사기 황금기' 들어섰다

공매도 투자자 체이노스, AI기업 포장 증가 경고

2020년 억만장자 공매도 투자자 집체이노스는 실리콘밸리의 '성공할 때까지 속여라' 문화와 팬데믹 시기 개인투자자들의 급증으로 인해 '사기 황금기'에 들어섰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체이노스는 인공지능(AI) 붐이 30여 년 전 닷컴 버블보다 더 커지면서 그는 "이제 다이아몬드나 플래티넘 단계의 사기 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체이노스는 언론 회계 부정을 예측하고 공매도로 큰 수익을 거둔 인물로, 이번에도 AI 열풍 속에서 금융 사기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AI 기반 딥페이크 같은 기술 사기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특히 금융 사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AI 시장 호황을 타고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 사이클 뒤에 사기 사이클"

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10% 상승했는데, 대부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덕분이었다. 팬데믹 매크로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들의 막대한 지출은 미국 GDP 성장률을 0.5% 끌어올렸다.

체이노스는 "사기 사이클은 금융 사이클을 일정 시차



를 두고 따라온다"는 자신의 오랜 견해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AI역사에 의거하면, 기업들이 자신을 AI기업이라 포장하거나 혁신적 기술 돌파구를 내세우며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균열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쇼핑 테크 스타트업 네이트가 AI가 결제를 돕는다고 투자자에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필리핀·루마니아 인력이 수작업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전 CEO 앨버트 사니거는 증권사기와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체이노스는 과거에도 느슨한 규제가 사기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으며, AI와 금융 시스템을 제3자가 규제해야 하는지, 혹은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금융 사이클은 열기, 벨류에이션, 자본시장 활동 면에서 닷컴 버블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즉, AI 붐은 거대한 성장의 기회이자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기와 투자자 기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체이노스의 진단이다.

사진=shutterstock

자영업, 매출 늘 것 같은데 직원 못 구해

낙관지수 0.5% 올라, 노동력 질 저하 우려 높아

자영업의 경기 전망이 8월 들어 매출 증가 기대 속에 한층 개선됐지만, 노동력의 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9일 자영업 낙관지수가 전달 대비 0.5포인트 오른 100.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주의 비율은 6%포인트 상승해 12%에 달했다.

불확실성 지수는 4포인트 떨어져 93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NFIB 수석 이코노미스트 빌 토크버그는 "업주들이 전반적인 사업 환경의 개선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여전히 노동력의 질"이라고 말

했다.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가 노동자 풀을 축소시켜 일자리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다.

NFIB에 따르면 8월 기준 32%의 자영업이 일자리를 채용 수 없다고 보고했다. 미중원 구인 비율이 32% 아래로 떨어진 마지막 시점은 2020년 7월이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두드러져,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전체 기업 가운데 21%는 '노동력의 질'을 자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아, 이 비율이 여전히 변함없는 수준임을 나타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